군공항 이전·의과대학 등 해묵은 현안 해결 의지

이재명 광주·전남 공약 무슨 내용 담겼나

2023기후총회 영호남 공동유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고대 마한 역사문화 복원 등 약속
예산 마련 대책 등 청사진 필요

13일 발표된 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광주·전남 공약에는 이 지역의 현안 사업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공약 실천 방안과 예산 마련 대책 등 실질적인 청사진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이 지사의 지역 공약은 4차산업 육성과 교통 인프라 확충, 광주 군공항 문제 해결 등 지역의 해묵은 현안 사업이 포함됐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신안·여수 해상풍력단지 조기 실현 ▲재생에너지 기반 주민소득 모델 '햇빛연금', '바람연금' 시행 ▲2023년 28차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영호남 공동유치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약속했다. 특히 "지역에서 추진하는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구축산업을 지원하고 나주의 한국에너지공대는 기후·에너지 중심의 세계 일류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지사는 광주·전남 지역을 문화·해양·생태관광산업과 농축산 식품 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전남도 의과대학 설립 추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전라선 고속철도 추진 ▲달빛내륙철도 조기 착공 ▲광주 군공항 문제 해결 등 지역 숙원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공약했다.

광주의 문화와 전남지역의 해양·생태를 활용한 관광 전략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면서 "전남도가 추진하는 해양습지 정원 조성사업 지원과 함께 생태 문화 자원의 보고인 전남의 섬들을 테마와 힐링이 있는 세계적인 관광·휴양의 명소로 만들어가도록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고대 마한에 대한 청사진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찬란했던 고대 마한의 역사문화를 복원하고 영산강 수변구역이 국가 정원으로 발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농수축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스마트 농수축산업과 식품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조성하고, 광주·전남에 스마트팜을 확대 보급하며 자원순환형 축산 공동체를 구축해 농가 소득을 확대하겠다"며 "전남 수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위해 김·해조류 및 전복 산업 혁신클러스터 등을 조성해 전남을 고품질 해조류와 어패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전남의 강점인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여 친환경 농식품 수출판로를 개척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현안 중 하나인 공공 의료 확충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전남도의 의과대학 설립을 원활히 추진해 양질의 대학병원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 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광주광역시 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광주·전남의 풍부한 바이오·치유 자원과 메디컬 자원을 융복합해 AI 산업과 바이오 헬스 산업을 연계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또 이 지사는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남·경남의 협력사업인 여수남해 해저터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하는 이낙연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 해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선 직행" vs "결선 투표" 민주 경선 호남혈투 점화

이재명 역량 총투입
"압승으로 조기에 후보 확정"
이낙연 "호남서 지면 끝"
전력 총동원 마지막 배수진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에서 호남이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호남의 선택'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5~26일 광주·전남과 전북 순회경선 결과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는 결선없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고, 이낙연 전 당대표는 추격의 발판을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이 지사는 호남 순회경선을 앞두고 '대세론' 굳히기 총력전에 나섰다. 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주간브리핑에서 "조기 후보 확정은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본선 경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핵심 전략"이라며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 측은 전날 발표된 1차 국민·일반선거인단 개표 결과를 포함해 51.41%의 지지를 획득한 만큼, 이변 없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2위인 이낙연 전 대표가 그의 '홈그라운드'인 호남에서의 지역 순회경선을 앞두고 득표율 30%를 돌파하면서 이재명 캠프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 지사도 전날 밤 "어차피 이재명이 후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순간 승리는 날아간다. 마지막까지 긴장감 늦추지 말고 함께해달라"며 '어후명(어차피 후보는 이재명)' 경계령을 내린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이 지사 측은 본선 직행을 결정지을 관건이 될 '호남대첩'에 남은 2주간 캠프의 역량을 총동원할 태세다.

총괄본부장인 조정식 의원은 브리핑에서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고,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진보진영 승리를 위한 탁월한 선택을 해 줬다"며 "이재명은 호남 정신을 계승해 민주정부 재창출을 이룰 유일한 대안"이라고 호소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눈 앞으로 다가온 호남 경선에 모든 전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낙연 캠프는 이달 초 지역순회 경선 시작과 동시에 호남 표심 다지기에 전력을 쏟아왔다. 최근에는 필수인력을 제외한 캠프 직원 전원을 호남에 상주시키다시피 하며 지역표심 갈이에 주력하고 있다.

호남에 분포한 대의원·권리당원의 표는 총 20만표로, 이번 경선의 승부를 좌우할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현재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누적 표차는 약 11만표다.

이 전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02년 호남이 위대했던 이유는 될 것 같은 이인제 후보가 아니라 되어야 할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가치투표, 미래투표가 민주당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캠프에서는 호남에서 이 지사와 나란히 40% 초·중반대 각축전을 벌인다면 내달 3일 '2차 슈퍼위크'에서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2차 선거인단에 등록된 유권자는 총 49만6000명으로 호남표의 2.5배에 달하는 만큼 호남의 기세를 '2차 슈퍼위크'에서 증폭시키겠다는 시나리오다.

캠프에서는 이 전 대표가 이후 의원직 사퇴선언으로 보여준 결기에 민심이 반응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진정성이 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계 기준 이 지사와 20% 포인트 가량 벌어지는 만큼 역전을 위해서는 호남에서 대승을 거둬야 하는 상황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27.8%·윤석열 26.4%·홍준표 16.4%

KSOI 조사…이낙연 16.3%

차기 대권주자 다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구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추격세도 이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전주보다 0.2%포인트 하락한 27.8%, 윤 전 총장은 전주와 같은 26.4%를 각각 받으며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홍 의원은 전주보다 2.8%포인트 오른 16.4%를 받으며 KSOI 자체 조사 결과 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3위로 집계됐다.

지난 8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이 전 대표도 전주보다 4.6%포인트 올라 16.3%를 받으며 4위를 기록했다.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2.3%), 유승민 전 의원(2.2%),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1%),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1.4%) 등의 순이었다.

범 진보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 지사가 전주보다 1.1%포인트 떨어진 28.7%를 기록한 가운데 이 전 대표는 25.1%로 전주보다 7.1%포인트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사이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6%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어 추 전 장관이 5.2%를 받았고, 민주당 박용진 의원(4.6%) 순이었다.

범 보수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홍 의원이 전주보다 2.4%포인트 상승한 28.7%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0.1%포인트 하락한 윤 전 총장(28.1%)을 제쳤다.

KSOI의 범보수권 조사에서 홍 의원이 윤 전 총장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유 전 의원(11.9%), 안 대표(3.8%), 최 전 감사원장(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